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 음운 변동의 종류의 개념을 묻는 문제)
2. <보기>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조항을 제시한 후 그 조항의 해당하는 사례를 묻는 문제
3. 단어의 올바른 표기, 올바른 발음을 묻는 문제

[지문 분석]

1 음운*(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의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음운이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음운 변동 단원에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 음운 체계에 대해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관련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동의 개념과 종류**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분명 한글로 된 단어인데도 정확한 발음을 몰라 당황했던 경험*(독자의 경험을 이끌어 내어 흥미를 유발함.)*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말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단어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단어도 있음.)* 음운의 변동이 어떤 조건*(어떤 음운이 놓이는 음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발음의 편의를 위해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음운의 변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음운이 달라지는 까닭

맛보기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파악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신라 시대에도 왕의 권력은 매우 강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신라', '권력'은 각각 [실라], [궐력]으로 발음된다. 두 단어 모두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고 'ㄴ'이 'ㄹ'로 바뀌는 변화*('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인 유음화에 해당함.)*가 일어났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음운 변동의 개념)***(본문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음운 체계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아졌지만, 전년도에는 자음·모음 체계표를 통해 음운에 대한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무조건 표기된 대로만 발음하기로 약속한다면 언

어생활이 훨씬 쉬워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표기대로만 발음하였을 때 발음이 불편한 단어가 많음.)* '신라', '권력'을 표기된 그대로 발음해 보자. 'ㄴ'을 'ㄹ'로 바꾸지 않으면 두 음절을 이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ㄴ'은 비음이고 'ㄹ'은 유음이라서 둘을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렇게 음운이 변동되는 까닭은 대개 발음의 편의*(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위한 것이다.

음운 변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슬그머니 달라지는 음운*(음운 변동의 종류①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음.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있음.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으로, 어말 또는 자음 앞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의 앞에서 일어남.)* **(단어에 일어난 변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깎다[깍따]'가 한 가지 종류의 변동만 일어난 단어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 난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 문제로,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지만 둘 다 교체 현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변동만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으로 나눠진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맛보기

- 다음 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고, 발음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파악해 보자.
  - ① 국민 → [궁민]: '_ㄱ_'이 '_ㅇ_'(으)로 바뀐다.*(비음화)*
  - ② 칼날 → [칼랄]: '_ㄴ_'이 '_ㄹ_'(으)로 바뀐다.*(유음화)*
  - ③ 입고 → [입꼬]: '_ㄱ_'이 '_ㄲ_'(으)로 바뀐다.*(된소리되기)*
  - ④ 굳이 → [구지]: '_ㄷ_'이 '_ㅈ_'(으)로 바뀐다.*(구개음화)*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은 위의 예들처럼 다른 음운으로 바뀌기도 한다.*(음운의 교체)* 어떤 조건*(=음운 환경, 특정 자음 또는 모음 주변)*들에서 어떤 음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과 같은 음운 변동은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비음화의 개념)*이므로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 'ㅁ, ㄴ,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비음의 조음 방법)*인데, 비음 'ㅁ, ㄴ'의 바로 앞에 비음이 아닌 소리 'ㄱ, ㄷ, ㅂ'이 오면 그것도 비음 'ㅇ, ㄴ, ㅁ'으로 바꾸는 것이 발음하기에 더 쉽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ㅇ' 앞에 오면 비음 'ㅇ, ㄴ, ㅁ'로 바뀌는 현상으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것임.)*

- 받는 → [반는]
- 밥물 → [밤물]

②는 앞에서 예로 들었던 '신라', '권력'과 같은 현상*(유음화)*이다. 이는 'ㄹ-ㄴ' 소리나 'ㄴ-ㄹ' 소리를 연결하여 발음하기 어려우므로*(비음과 유음을 연결하여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ㄴ'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유음화의 개념)*이라서 유음화라고 부른다.

- 생일날 → [생일랄]
- 단련 → [달련]

③은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평음)가 'ㄲ, ㄸ, ㅃ, ㅆ, ㅉ' 같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

상*(된소리되기의 개념)*이라서 된소리되기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은 총 다섯 가지임. 교과서에서는 어간 받침 'ㅄ, ㅀ'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 학교 → [학꾜], 닫지 → [닫찌], 잡고 → [잡꼬] **(된소리되기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밭갈이'가 [받까리]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이겠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간 받침 'ㄴ, ㅁ'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 (신발을) 신고 → [신ː꼬], (머리를) 감다 → [감ː따]**(된소리되기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껴안다'가 [껴안따]로 발음되는 것을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경우: 물질(物質) → [물찔], 발달(發達) → [발딸]**(된소리되기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된소리되기로 '일시, 몰상식'이 같은 예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 '훑소[훌쏘]'의 된소리되기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훑소[훌쏘]'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ㅀ'의 'ㅌ'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최종적으로 탈락하기 전에 뒷말에 영향을 끼쳐서 뒤에 이어지는 'ㅅ'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심화된 변동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해와 암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날 사람[싸람]', '먹을 것[껃]'처럼 관형사형 어미*(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로 '-(으)ㄴ', '-는', '-던', '-(으)ㄹ' 따위가 있음. '-(으)ㄹ걸, -(으)ㄹ게, -(으)ㄹ수록, -(으)ㄹ지라도'와 같이 'ㄹ'로 시작하는 어미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남.)* **(된소리되기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관형사형 '-(으)ㄹ' 뒤의 된소리되기로 '갈 곳, 할 수는'이 같은 예이다.'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된소리되기는 매년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동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어간,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요소에 대한 학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으)ㄹ' 뒤에 있는 체언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도 있다.

④는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이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구개음화의 개념, 단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인 'ㅣ' 앞에서만 일어남.)*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닫혀[다처]'의 발음이 틀린 예로 '[다쳐]'가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구개음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구개음화는 형태소에 대한 개념과 연계하여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변동 현상이니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이다.

- 곧이 → [고지]
- 같이 → [가치]

온데간데없는 음운*(음운 변동의 종류② 탈락: 음운 중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 음운의 개수가 줄어듦. 탈락의 종류로 자음 탈락인 'ㄹ' 탈락과 'ㅎ' 탈락,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둘 중 하나의 자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음운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도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ㄹ' 탈락의 예에는 '날- + -는 → [나는]'이 있고, 'ㅎ' 탈락의 예에는 '놓- + -아 →[노아]'가 있음. 자음군 단순화의 예에는 '몫[목]' 등이 있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값지다[갑찌다], 닭고[담꼬], 값하다[가파다], 흙까지[흑까지], 칡범[칙뻠]'이 출제되었습니다.)**(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 중에서도 금년도에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진 음운 변동입니다. 종성에서 일어나는 탈락 현상이라 음절 끝소

리 규칙과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맛보기

• (가)와 (나)의 차이를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해 보자.

	(가)	(나)
①	크- + -고 → 크고	크- + -어 → 커
②	남녀(男女)	여자(女子)

있던 음운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한다.*(음운의 탈락)* 위의 ①에서 '커'는 '크고'에서와 달리 용언 어간에 있던 'ㅡ'가 탈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ㅡ'가 'ㅏ, ㅓ'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ㅡ' 탈락의 개념)*을 'ㅡ' 탈락이라고 한다.

• (문을) 잠그- + -았- + -다 → 잠갔다
• (글씨를) 쓰- + -었- + -다 → 썼다

(모음이 탈락하는 다른 상황으로 '가-'와 '-아서'가 결합한 형태인 '가서'와 같은 것이 있음. 동일한 모음이 어간과 어미에서 이어질 경우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동음 탈락'이라고도 함.)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변동과 관련하여 '두음*(단어의 1음절 첫소리)* 법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②를 보자. '여자'라는 말은 원래의 한자음대로라면 '녀자'라고 쓰고 읽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어의 맨 앞에서 그 첫소리 'ㄴ'이 단모음 'ㅣ'나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반모음 'ㅣ'와 단모음 'ㅏ, ㅓ, ㅗ, ㅜ'가 결합한 형태)*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탈락한다. 그래서 '남녀'에서와 달리*('녀'가 2음절에 위치함.)* '여자'에서는 맨 앞에 온 '녀(女)'를 '여'라고 쓰고 읽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이 'ㄴ'이거나 'ㄹ'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이 제약되는 현상*(두음 법칙의 개념)* **(탈락이 일어나는 두음 법칙의 예로 '유대, 유행, 실패율'이 출제되었습니다.)**이므로 두음 법칙이라고 부른다.

• 작년(昨年) / 연도(年度)　　• 공리(公利) / 이용(利用)

그런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예에는 'ㄴ, ㄹ'이 사라지는 것*(탈락)* 이외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교체)*도 있다. 이런 경우는 '온데간데없는 음운'이 아니라 '슬그머니 달라지는 음운'*(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가 모두 음운의 탈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교체에 해당하는 두음 법칙도 있음.)* **(교체가 일어나는 두음 법칙의 예로 '낙원, 내일, 뇌성'이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두음 법칙을 탈락과 교체로 나누고 이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어에 사용된 한자의 원음을 암기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 쾌락(快樂) / 낙원(樂園)　　• 왕래(往來) / 내일(來日)

느닷없이 나타난 음운*(음운 변동의 종류③ 첨가: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음운의 개수가 늘어남. 단, 음운 변동으로 인해 첨가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임. 첨가의 종류로 'ㄴ' 첨가도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ㄴ' 첨가의 예로는 '맨- + 입 → [맨닙]' 등이 있음.* **(첨가 현상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급행열차[그팽녈차], 알약[알략]'이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반모음 첨가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교과서에 없는 'ㄴ' 첨가 현상에 대

한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맛보기

• 다음의 발음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파악해 보자.

피어라 → [피여라]

원래는 없던 음운이 발음 과정에서 덧붙는 현상*(음운의 첨가)*도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피어라'를 표기대로 [피어라]로 발음하지 않고 [피여라]라고 발음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단모음 'ㅕ'에 반모음이 덧붙어서 이중 모음 'ㅕ'*(반모음 'ㅣ'와 'ㅓ'가 결합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①)*, 또는 '학교에 → [학꾜에]'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②)* 반모음*(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 'ㅑ', 'ㅒ', 'ㅖ',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따위의 이중 모음에서 나는 'j', 'w' 따위)*이 덧붙는 현상]*([ ]: 반모음 첨가의 개념)*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대로 발음하는 것은 원래는 표준 발음이 아니지만, 용언의 어미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의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 현상은 표준 발음이 아님.)*

• (바닥을) 기- + -어 → 기어[기어 / 기여]
• 연휴에 → [연휴에 / 연휴예]*([연휴예]는 체언 '연휴'와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아님.)*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음운 변동의 종류④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현상, 음운의 개수가 줄어듦.)*

맛보기

•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파악해 보자.

"갑자기 장학금이 끊겨서 법학 공부를 마치는 데 애를 먹었다."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음운의 축약)*도 있다. 위의 문장에서 '끊겨서'는 [끈켜서]로, '법학'은 [버팍]으로 발음된다. 전자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뀐 것이고, 후자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거센소리되기의 개념)***(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넓힌'이 출제되었습니다.)(매년 출제되는 유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물을 때 거센소리되기와 다른 변동 현상을 연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동 현상에 대한 복합적 학습이 필요합니다.)**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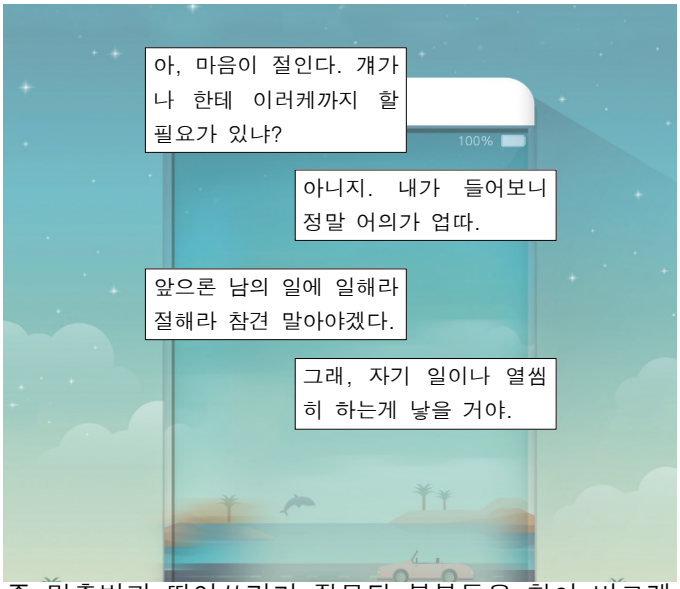
• 좋고 → [조 : 코]　　• 옳다 → [올타]　　• 많지 → [만 : 치]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체계

앞에서 배운 음운 변동이 우리말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말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원칙이 되는 '한글 맞춤법'을 알아야 한다.*(한글 맞춤법은 올바른 표기를 정해 놓은 규칙 전반을 의미함.)* 맞춤법 공부는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쉽지만, 그 밑바탕에 자리 잡은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한다면 개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얼마나 편할까

맛보기



• 다음 중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절인다→저린다, 나 한테→나한테, 이러케까지→이렇게까지, 어의가 업따→어이가 없다, 일해라 절해라→이래라저래라, 열씸히→열심히, 하는게→하는 게, 낳을→나을)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된다.

> 제1장 총칙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발음대로 적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 소리대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표의주의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은 표음 문자*(소리를 적는 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구름, 나무, 달리다'*(발음과 표기가 같은 문자)* 등이 모두 이 원칙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꽃'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자. 이 단어는 환경에 따라 [꼳], [꼬치], [꼰만]처럼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진다.*(소리대로만 적을 때의 문제점,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그래서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형태소의 본래 형태)*을 밝혀 적으라는 의도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더해진 것이다.

맛보기에 제시된 표기 중에서 '이렇게까지'를 '이러케까지'로, '없다'를 '업따'로, '열심히'를 '열씸히'로

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음운*(말의 __을 구별하여 주는 ____의 가_____)* **(음운의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음운이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음운 변동 단원에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 음운 체계에 대해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관련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동의 개념과 종류**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분명 한글로 된 단어인데도 정확한 발음을 몰라 당황했던 경험*(독자의 ____을 이끌어 내어 ____를 유발함.)*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말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음운의 변동이 ____에 반영되는 단어도 있고 _____ 단어도 있음.)* 음운의 변동이 어떤 조건*(어떤 음운이 놓이는 _____)*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발음의 ____를 위해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음운의 변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음운이 달라지는 까닭

맛보기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파악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신라 시대에도 왕의 권력은 매우 강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신라', '권력'은 각각 [실라], [궐력]으로 발음된다. 두 단어 모두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고 'ㄴ'이 'ㄹ'로 바뀌는 변화*('__'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__'의 영향을 받아 '__'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인 _____에 해당함.)*가 일어났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음운 변동의 개념)***(본문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음운 체계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아졌지만, 전년도에는 자음 · 모음 체계표를 통해 음운에 대한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무조건 표기된 대로만 발음하기로 약속한다면 언어생활이 훨씬 쉬워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표기대로만 발음하였을 때 _____ 단어가 많음.)* '신라', '권력'을 표기된 그대로 발음해 보자. 'ㄴ'을 'ㄹ'로 바꾸지 않으면 두 음절을 이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ㄴ'은 ____이고 'ㄹ'은 ____이라서 둘을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렇게 음운이 변동되는 까닭은 대개 발음의 편의*(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__ __)*를 위한 것이다.

음운 변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슬그머니 달라지는 음운*(음운 변동의 종류① ____: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_____, 음운의 개수는 _____. 음절 끝소리 규칙, _____, _____, _____, _____가 있음. 음절 끝소리 규칙*

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

개념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발생 이유	대개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남.

2. 음운 변동의 종류 ① - 교체

비음화	비음 'ㅁ, ㄴ'의 바로 앞에 비음이 아닌 소리 'ㄱ, ㄷ, ㅂ'이 오면 그것도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궁물], 부엌문[부엉문], 밥물[밤물]
유음화	'ㄴ'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실라], 권력[궐력]
된소리 되기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가 'ㄲ, ㄸ, ㅃ, ㅆ, ㅉ' 같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 예 깎다[깍따], 옷고름[옫꼬름] • 어간 받침 'ㄴ, ㅁ' 뒤 예 앉고[안꼬], 젊지[점:찌] • 어간 받침 'ㄻ, ㄼ' 뒤 예 넓게[널께], 핥다[할따] •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예 절도(節度)[절또] • 관형사형 어미 'ㄴ(으)ㄹ' 뒤 예 할 것을[할꺼슬]
구개음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밭이[바치], 굳히다[구치다]
두음 법칙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ㄴ'으로 바뀌는 현상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음. 예 낙원(樂園), 내일(來日)

3. 음운 변동의 종류 ② - 탈락

'ㅡ' 탈락	용언 어간 끝소리 'ㅡ'가 'ㅏ, ㅓ'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잠갔다, 담갔다, 썼다, 기뻤다
두음 법칙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ㄴ'으로 바뀌는 현상 • 단어의 맨 앞에서 그 첫소리 'ㄴ'이 단모음 'ㅣ'나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여자, 연세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 'ㄹ'이 'ㅑ, ㅕ, ㅖ, ㅛ, ㅠ, ㅣ'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양심, 유행, 예의, 이용

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내신 암기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

개념	어떤 음□이 그 놓이는 음운 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발생 이유	대개 발□의 편□를 위해 일어남.

2. 음운 변동의 종류 ① - 교체

□음화	비음 '□, □'의 바로 앞에 비음이 아닌 소리 'ㄱ, ㄷ, ㅂ'이 오면 그것도 비음 '□, □, □'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물], 부엌문[부□문], 밥물[□물]
□음화	'□'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의 영향을 받아 '□'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라], 권력[□력]
□□□ 되기	'ㄱ, ㄷ, ㅂ, ㅅ, ㅈ' 같은 □□소리가 '□, □, □, □, □'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 받침 '□, □, ㅂ' 뒤 예 깎다[깍□], 옷고름[옫□름] • 어□ 받침 '□, □' 뒤 예 앉고[안□], 젊지[점:□] • 어□ 받침 '□, □' 뒤 예 넓게[널□], 핥다[할□] • '□'로 끝나는 한자와 '□, □, □'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예 절도(節度)[절□] • 관□□형 어□ '-(으)□' 뒤 예 할 것을[할□□]
□□음화	'□, □'이 모음 '□'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 □'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 밭이[바□], 굳히다[구□다]
□□ 법칙	'□'이 단어의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으로 바뀌는 현상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 □, □, □, □, □'로 적음. 예 낙원(樂園), 내일(來日)

3. 음운 변동의 종류 ② - 탈락

'□' 탈락	□언 어□ 끝소리 '□'가 '□, □'로 시작하는 어□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잠갔다, 담갔다, 썼다, 기뻤다
□□ 법칙	'□'이 단어의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으로 바뀌는 현상 • 단어의 맨 앞에서 그 첫소리 '□'이 □모음 '□'나 □□ 모음 'ㅑ, ㅕ, ㅛ, ㅠ'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여자, 연세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 '□'이 'ㅑ, ㅕ, ㅖ, ㅛ, ㅠ, ㅣ'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양심, 유행, 예의, 이용

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내신 암기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

개념	어떤 □□이 그 놓이는 음운 □□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발생 이유	대개 □□의 □□를 위해 일어남.

2. 음운 변동의 종류 ① - 교체

□□□	비음 '□, □'의 바로 앞에 비음이 아닌 소리 '□, □, □'이 오면 그것도 비음 '□, □, □'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 부엌문[□□□], 밥물[□□]
□□□	'□'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의 영향을 받아 '□'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 권력[□□]
□□□ □□	'ㄱ, ㄷ, ㅂ, ㅅ, ㅈ' 같은 □□□□가 '□, □, □, □, □' 같은 □□□로 바뀌는 현상 • 받침 '□, □, □' 뒤 예 깎다[□□], 옷고름[□□□] • □□ 받침 '□, □' 뒤 예 앉고[□□], 젊지[□:□] • □□ 받침 '□, □' 뒤 예 넓게[□□], 핥다[□□] • '□'로 끝나는 한자와 '□, □, □'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예 절도(節度)[□□] • □□□형 □□ '-(□)□' 뒤 예 할 것을[□□□]
□□□□	'□, □'이 모음 '□'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 □'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 밭이[□□], 굳히다[□□□]
□□ □□	'□'이 단어의 □□□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으로 바뀌는 현상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 □, □, □, □, □'로 적음. 예 낙원(樂園), 내일(來日)

3. 음운 변동의 종류 ② - 탈락

'□' □□	□□ □□ 끝소리 '□'가 '□, □'로 시작하는 □□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잠갔다, 담갔다, 썼다, 기뻤다
□□ □□	'□'이 단어의 □□□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으로 바뀌는 현상 • 단어의 맨 앞에서 그 첫소리 '□'이 □□□ '□'나 □□ □□ 'ㅑ, ㅕ, ㅛ, ㅠ'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여자, 연세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 '□'이 'ㅑ, ㅕ, ㅖ, ㅛ, ㅠ, ㅣ'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양심, 유행, 예의, 이용

고1국어 지학사

4(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

개념	어떤 ____이 그 놓이는 음운 ____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발생 이유	대개 ____의 ____를 위해 일어남.

2. 음운 변동의 종류 ① - 교체

_____	비음 '_____'의 바로 앞에 비음이 아닌 소리 '_____'이 오면 그것도 비음 '_____'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____], 부엌문[_____], 밥물[____]
_____	'__'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__'의 영향을 받아 '__'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____], 권력[____]
_____ ____	'ㄱ, ㄷ, ㅂ, ㅅ, ㅈ' 같은 _____가 '_____' 같은 ____로 바뀌는 현상 • 받침 '_____' 뒤 예 깎다[____], 옷고름[_____] • ____ 받침 '_____' 뒤 예 앉고[____], 젊지[_____] • ____ 받침 '_____' 뒤 예 넓게[____], 핥다[____] • '__'로 끝나는 한자와 '_____'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예 절도(節度)[____] • _____ '_____' 뒤 예 할 것을[_____]
_____	'_____'이 모음 '__'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_____'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____], 밭이[____], 굳히다[_____]
_____ ____	'__'이 단어의 _____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__'으로 바뀌는 현상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_____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_____'로 적음. 예 낙원(樂園), 내일(來日)

3. 음운 변동의 종류 ② - 탈락

_____	_____ 끝소리 '__'가 '_____'로 시작하는 ____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잠갔다, 담갔다, 썼다, 기뻤다
_____ ____	'__'이 단어의 _____로 발음되는 것을 꺼려 '__'으로 바뀌는 현상 • 단어의 맨 앞에서 그 첫소리 '__'이 _____ '__'나 _____ 'ㅑ, ㅕ, ㅛ, ㅠ'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여자, 연세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 '__'이 'ㅑ, ㅕ, ㅖ, ㅛ, ㅠ, ㅣ' 등에 결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예 양심, 유행, 예의, 이용